

이 책의 다섯 장면

규칙은 위기를 기억하는 방식이다

- 01 빚과 이자의 질서를 만든 고대의 계약
- 02 공공신용과 최종대부자의 탄생
- 03 공황이 낳은 예금보험과 투자자보호
- 04 세계화가 만든 바젤과 거시건전성
- 05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AI의 새 경계

금융규제의 역사는 시장과 국가가 위험의 경계를 다시 그어 온 역사다.

A HISTORY OF TRUST

금융규제는 신뢰의 기반시설이다

돈의 약속을 지키는 규칙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금융규제는 시장 밖에서 시장을 방해하는 장치가 아니다. 화폐와 은행, 증권과 보험, 결제와 신용이라는 약속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다. 위기가 오면 그 규칙은 누가 먼저 보호받고 누가 손실을 떠안을지를 드러낸다.

이 책은 고대의 채무 계약에서 중앙은행과 예금보험, 대공황기의 증권감독, 국경을 넘는 은행규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거시건전성 정책까지 금융질서를 만든 선택들을 추적한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 신용평가가 새 경계를 흔드는 오늘에도 질문은 같다. 돈의 약속이 무너질 때 국가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며, 다음 위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위기가 남긴 다섯 개의 경계

1694 공공신용과 중앙은행

1930s 예금보험과 증권감독

1974 국경을 넘는 은행감독

2008 위기 이후의 거시건전성

2020s 디지털 자산과 알고리즘

퍼플

고대의 채무 계약에서 디지털 금융까지

금융규제의 작은 역사

김민성

A LITTLE HISTORY OF FINANCIAL REGULATION

MONEY / TRUST / CRISIS

금융규제의 작은 역사

돈의 약속이 무너질 때,
국가는 무엇을 지켰는가



김민성 지음

퍼플

저자

김민성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조정과 평가, 규제, ODA,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현재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으로서 규제합리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FINANCIAL REGULATION AS MEMORY